



“우리 대학생이에요” 동국대학교(총장 오영교)는 2월 26일 서울 캠퍼스 만해광장에서 2009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했다. 신입생 3127 명을 비롯해 학부모, 학교 관계자 등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입학식에서 오영교 총장은 식사를 통해 “동국의 새 가족이 된 여러분을 기쁜 마음으로 축하하고 환영한다”며 신입생들의 힘찬 출발을 축하했다. 입학식이 끝난 후 포토존에서 신입생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박재완 기자**

조계종 자비나눔 캠페인 전개

저소득·실직가정을 위한



- 희망의 등달기**
이웃을 위한 마음도 함께 담아 부처님께 등달기를 올립니다. 등달량비 총 1,000원인 이웃을 위해 사용 됩니다.
- 1배 100원 모금법회**
3월 27일(금, 초하루) 오전 10시 전국 모든 사찰에서 이웃을 위한 1배 100원, 108배 기도법회를 통해 기부할 예정입니다.
- 한끼 나누기**
부처님 오신날을 맞이하여 가족 모두 한끼(인당5천원)를 이웃과 나누세요. 사찰은 밥을 나눠서 이웃에게 회향합니다.

자비나눔 동행
자비나눔 캠페인
자비나눔 캠페인
자비나눔 캠페인

조계종(총무원장 지관)은 최근 자비나눔 캠페인 홍보포스터 및 리플릿을 제작해 전국 사찰에 배포했다. 이번 홍보물은 총 2200개가 제작돼, 조계종 교구본·말사와 봉축행사 참가단체 등에 배포된다. 홍보물은 주요 사업인 △희망의 등달기 운동 △1배 100원 모금법회 △한끼 나누기 운동 △자비연꽃 뱃지달기 운동 내용을 담고 있다. 조계종 사회부장 세영 스님은 “경제난으로 많은 이들이 고통 받는 시대에 나누는 정성을 함께 실천하자”며 불자들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02)2011-1822. 아름다운동행(www.thenanum.org)

종교편향 시민이 잡는다

범불교도대회 후 바뀐 국민인식, 법적 토대는 '걸음마'

초등학교 수업시간에 크리스마스 트리나 성탄카드를 만든다면, 선거 투표용 교회를 만든다면, 종교차별일까, 아닌가?
2008년 8·27 범불교도대회 이후 무심코 넘어갔던 일상생활의 종교편향성이 시민의식 변화로 차츰 개선되고 있다.
문공부 산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2월 5일 '다·무종교 학생의 거부감'을 이유로 각 교육청에 트리 및 카드를 만들지 않겠다고 하라는 권고지침을 내렸고, 앞선 2월에는 '일반국민의 차별오해'를 들어 서울시장에 시청광장 크리스마스 트리 설치 금지 공문을 보냈다.
이뿐만이 아니다. 4·29 재보궐 선거 실시가 확정된 전북 전주 덕진, 완산 갑, 경북 경주와 부평을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종교시설 투표소 반대 여론으로 투표소를 일반시설로 모두 변경했다. 전북 덕진 선거위는 기존 선거까지 이용했던 인후1동 2부(중앙성결교회), 4부(성도순복음교회) 등 총 9군데를, 전주 완산 갑 선거위는 중앙동 1부(전주신흥교회) 등 총 3군데 종교시설 투표소를 노인정과 학교로 바꿨다.
부평을 선거위는 청천1동 1부(세계로교회)와 갈산1동 3부(사랑의교회)를 다른 시설로 변경했으며, 경주 완산갑 동천동 3부(명안교회)를 변경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종교편향에 달라진 시민의식
제17대 대통령선거 당시 1172개에 달했던 종교시설 투표소와 크리스마스카드 등 일상생활에서 관례적으로 행해지던 종교편향 사례가 개선된데는 8·27 범불교도대회 이후 바뀐 시민의식이 크게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실제로 구로구(구청장 양대웅)도 2월 2일부터 23일까지 주민에게 행정을 소개하기 위한 동일부 보고회를 교회에서 열었다가, 한 주민의 제보로 교계 언론에 보도돼 호된 비판을 받았다.
오프라인을 넘어서 온라인에서도 종교편향에 대한 인식은 변화했다. 신림동 한 주민센터는 교회에서 제공한 복음구절이 섞인 현관을 내걸었다가, 다음(Daum) 메인화면에 기사화돼 11만명의 네티즌들에게 비난을 받았다. KBS시사대거진 '뺨'도 MB정부 1주년을 맞아 22일 소망교회 주말 예배에서 “이명박 장로님을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신 아버지. 장로님을 지켜주시고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MB님 힘내세요. 할렐루야” 구호를 여과없이 실어 게시판이 ‘종교 방송이나’는 글로 도배됐다.
이러한 변화는 범불교도대회 직후 여론조사에서 이미 예상됐다. 2008년 9월 리서치 전문기관 리얼미터(대표 이택수)가 700명을 대상으로 한 ‘MB정부 종교편향’에 대한 결과는 바뀌어가는 시민의식을 보여줬다. 당시 ‘종교 편향적’

이 59.3%(매우 공감 38.4%)로 대회 직전인 8월 13일 조사 당시 54.1%에 비해 약 5.2% 증가했다. 특히 무교(29.7%→62.2%)의 ‘종교 편향’에 대한 인식변화도 나타나 범불교도대회가 ‘종교 편향’을 사회적 의제로 띄워 올렸음을 나타냈다.
#법적 뒷받침은...
하지만 이러한 국민인식 변화에도 법적 뒷받침은 아직 걸음마 단계다. 1월 13일 ‘공직자 종교차별 금지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처벌 조항이 삭제된 채 통과됐고, 종교투표소를 금지하는 선거법 개정안 또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제도적 미비는 당장 범불교도대회 이후 수그러들던 공직자 종교편향으로 이어지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1월 16일 ‘인천시를 하나님의 도시로 만들겠다’는 성서화운동본부(이사장 전용태) 행사에 참석해 “영적 축전인 국제성서축전이 열려 기쁘다”고 축하했다. 안 시장은 지난 2007년 인천 세계복음화 발언을 비롯해, 2008년 웨슬리교회 복원비 20억 및 한국교역사기념관 15억 예산 배정 등 종교편향 논란에 휩싸인 전력이었다. 이에 대해 인천 불교총연합회(회장 대은)는 2월 26일 “공식 사과 및 재발방지, 지원예산 투명공개, 종교합의기구 마련 등 요구가 3월 5일까지 실현되지 않을 시 4월 연등축제에서

본격적 대응에 착수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인천지역 시민단체들도 편향적 시정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민 모니터링 등 감시체제 시작
이러한 법·제도적 미비점에 불교계는 공동대응을 통해 여론 확산에 주력한다는 계획이다.
조계종 종교평화위원회(위원장 세영)와 종교자유정책연구원(대표 박광서)은 “지역별 사찰과 연계하고, 감시센터와 사이버 호법단을 구성해 지속적인 인식확산에 앞장서겠다. 우선 종교차별 모니터링단 ‘로터스 네트워크’에 호법양성과정을 거친 7~8명이 활동할 예정이다. 향후 서울, 수도권(인천), 영남(대구, 호남(광주), 충청(대전)의 5개 권역에 활동가를 두고 종교편향 사례를 적발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런 교계 노력에 더해 지속적인 교육 및 인식개선과 함께 법적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종교편향과 관련된 대부분의 교계 현장가들은 ‘종교 편향에 대한 사회의 관심이 줄어들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한계에 부딪힐 것’이라고 전망한다.
2월 28일은 4·28 재보궐 선거의 현직공직자 선거 영합발언이 금지된 날이다. 각종 선거와 공직자 발언, 더나가 일상생활까지 많은 대중의 정견과 공감대 형성이 필요한 때다.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하고싶을때 하는 공부가 진짜” “전문·특성·차별화 교육이 비전”



- 8 대불련 총동문화장 명호근
- 9 현장속으로 선지식들과 함께 댄 주선일미 체험
- 23 함께가야 강의실 우승택이 말하는 '희망 투자'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 5월말 시행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2월 25일 국무회의에서 처리돼 5월말 시행된다.
이에 앞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개발제한 구역 내 전통사찰의 증축 허용 △불교전통문화유산 보호 등을 위한 전통사찰문화연구원 설립 △불교전통문화유산의 효율적 보존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 지원 등을 명시했다.
국회 통과 당시 기획실장 장석 스님의 논평에서 “이번 개정은 전통사찰에 대한 법적 패러다임이 전환된 것”이라 호평했던 조계종은 이번에도 크게 반기는 분위기다.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은 관공고사와 시행령 공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종섭 기자

법구경
입으로는 성스러운 말을 하지만 행동하지 않으면 성스러운 삶을 누릴 수 없다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 031)792-6288
연등 031)794-4055

능인향당
향·조각·공양물
본사 02)3663-6777
(조계사 뒷문 02-730-6888 직영매장)

법률사무소 서안(瑞安)
스님, 불자들의 든든한 동반자입니다
법률사무소 서안
위탁업무: 민사·형사·가사·행정
강원도 변호사 031)436-3054
010-7504-4521

천사키 맛은 금강선원 뽕잎차
현대 불교 선연 연재 초종스님의 뽕잎차 이야기
다들 물어, 고함입, 천안승원
NAVER
대안불교조계종 금강선원
뽕잎차 주 문 TEL 055) 931-9590

얼레과일 두리안 전문 보이차, 각종 차류, 생활 도자기
창다원 031)882-1357
전국 직접 배송

용문사 운장대 운전으로 모든 액을 소멸하자!

용문사 전경, 용문사 교지(보물 제729호), 용문사 천불전, 목각좌상 및 목각탱(보물 제989호), 용문사 만동불사, 성보박물관, 팔상탱(보물 제1330호), 영산회괘불탱(보물 제1465호)

기축년(윤년)! 삼사순례와 방생법회는 운장대가 있는 용문사에서!

운장대를 둘러 입장을 소멸하고 소원을 성취하자

소백산 용문사는 신라시대에 창건된 천년고찰로서 한국불교 증흥과 호국에 앞장서온 대표적인 사찰입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용문사에는 우리나라 유일의 회전식 장경각인 운장대 및 대장전, 목각탱, 목각 삼존불, 세조의 교지, 괘불탱 등 약 315점의 문화재가 있습니다. 특히 호국을 기원하기 위하여 조성된 운장대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읽고 배우고 싶어도 그럴 수 없었던 이 땅의 수많은 중생들에게 복덕과 지혜의 길을 열어 주시는 자비롭고 영험하신 부처님 말씀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심각한 경제난과 사회 불안으로 점점 살기가 힘들습니다.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분, 건강을 기원하시는 분, 그리고 집안에 수험생이 있는 분, 새로 이사하는 분들 모두 운장대를 둘러서 입장소멸 하시고 사업성취, 병자제차, 학업성취를 이루시기 바랍니다. 용문사에서는 5분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전용 저수지가 있으며, 삼사순례를 할 수 있는 대승사, 김용사, 보문사, 장안사, 부석사, 청량사, 봉정사, 명봉사 등 전통있는 사찰들이 1시간 이내의 거리에 있습니다. 방생과 삼사순례로 한량없는 공덕 쌓으시고, 운장대를 둘러서서 각자 지은 업장을 소멸하고 바라는 바 모든소원을 성취하시길 다시 한번 기원합니다.

용문사 오시는 길
버스: 동서울터미널 출발 (06:10~6:30, 30분 간격) 3시간 소요 → 예천 하차 → 택시(용문사) 20분
승용차(서울): ① 중부고속도로 → 영동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② 영동고속도로 → 여주 IC → 중부내륙고속도로(충주김천방향) → 점촌 - 함창 IC
승용차(부산): 경부고속도로 → 중앙고속도로 → 예천 IC
승용차(대구): 중앙고속도로 → 안동 → 예천 IC

삼사순례도
대승사 10분소요, 김용사 30분소요, 용문사 10분소요, 명봉사 50분소요, 부석사 40분소요, 보문사 30분소요, 장안사 30분소요, 봉정사 30분소요

대한불교조계종 용문사 주지 벽담 청안 합장

• 용문사에서 5분 거리에 방생할 수 있는 방생전용 저수지 있음
• 방생차량 대형 차량 주차 가능

대한불교조계종 천년고찰 소백산 용문사
경북 예천군 용문면 내지리 391 (우)757-800 / 전화 : (054)655-1011, 011-336-4665 / 전송 : (054)655-8405